

해외직구 · 관광객 증가 ... 운수업 호황

통계청 '운수업조사 잠정결과' 146조 9천억원 택배 · 배달 붐으로 기업체 한해 8600개 증가



지난해 육·해·공 모든 운수업 중 매출액이 증가한 가운데 항공 운수업 매출이 특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운수업 전체 기업체 수·종사자 수·매출액도 증가했다. 항공운송업 매출 증가가 두드러진 것은 해외 직접구매(직구)와 관

광객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운수업조사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운수업 총 매출액은 146조 9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3% 증가했다. 기업체 수는 38만3737개로 2.3% 증가, 종사자수는 113만5000명으로 0.2% 증가했다. 영입비용은 4.8% 증가했다.

2017년 기업체 수·종사자 수·매출액·영업비용이 각각 전년비 0.9%, 1.4%, 0.7%, 1.6% 늘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운수업 성장세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가장 크게 성장세를 보였던 업종은 항공운송업이다. 매출액 증가치를 업종별로 보면 △항공운수업 2조3360억원(10.3% 증가) △육상운송업 1조1330억원(1.8%) △수상운송업 9140억원(3.3%) 순이다.

항공운송업 매출 증가의 원인은 해외직구 증가세와 지난해 관광객 증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해외직접구매액 증가율은 연도별로 2016~2018년동안 각각 12.1%, 17.6%, 32.5%를 기록해 직구 시장이 지난해 가장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국인 국제이동자 증가율도 같은 기간 3.6%, 4.2%, 5.0%로 지난해 가장 크게 늘었다.

한편 택배·배달업의 폭발적 성장으로 육상운송업이 기업체 수

증가를 견인했다. 기업체 수 증가치를 업종별로 보면 △육상운송업 8611개(2.4%) △항공운송업 3개(7.9%) △수상운송업 -23개(-3.8%) 순이다.

이와 관련해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쇼핑이 많이 늘고 택배도 계속 늘고있다"며 "철도 여객의 경우 SRT 승객이 많이 늘었다. 이같은 효과가 겹쳐 육상운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상운송과 관련해서는 "수상운송업은 2013년 이후 매출액이 줄곧 마이너스였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섰다"며 "수상운송은 외화환율 즉 수출입의 비중이 90% 이상인데, 지난해 외화환율 선적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입 물량 증가가 수상운송업 회복으로 이어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허리' 40대 일자리 5분기 연속 감소

2019년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보건복지 일자리 ↑, 제조업 5분기 연속 ↓

가계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의 일자리가 5분기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0대 일자리는 2분기 연속 20만개 이상 늘었다.

산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 일자리가 5분기 연속 감소한 가운데 고령층 취업이 많은 보건·사회복지 신규 일자리는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19년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868만5000개로 전년동기 대비 46만4000개 증가했다.

올 1분기 50만3000개 일자리가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다소 둔화된 모습이지만 지난해 2분기 24만4000개 증가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일자리 중 신규 일자리는 289만1000개로 전체 일자리의 15.5%를 차지했다. 기업체 소멸 또는 사업 축소로 사라진 일자리는 242만8000개를 기록했다.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262만5000개로 전체 일자리의 67.6%를 차지했으며,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16만8000개로 17% 비중을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40대 일자리가 줄고 60대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올 2분기 40대 임금근로 일자리는 463만7000개로 전년동기 대비 2만6000개(-0.6%) 감소했다. 지난해 2분기 0.1% 감소 이후 5분기 연속 감소세다.

반면 올 2분기 60대 일자리는 같은 기간 22만8000개 늘어난 232만개를 기록했다. 올 1분기 28만2000개 증가 이후 2분기 연속 20만개 이상 일자리가 늘어난 셈이다. 전체 연령대를 보면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일자리 감소세가 이어진 가운데 보건·사회복지 일자리가 크게 늘었다. 올 2분기 제조업 일자리는 420만4000개로 전년동기 대비 5000개(-0.1%) 감소했다.



'펫팸족' 반려동물에 월평균 23만원 사용

반려동물을 키우는 직장인들이 반려동물을 위해 사용하는 월 평균 비용은 2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직장인 831명에게 '펫팸족'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집계 나왔다. 27일 밝혔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직장인들에게 자신을 펫팸족(pet+family)이라고 생각하는

지들은 결과 응답자의 93.9%가 자신을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펫팸족'이라고 답했다.

반려동물을 위해 소비하는 금액은 가족, 친구 등과 함께 사는 다인 가구보다 1인 가구 그룹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26만원을 반려동물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다인 가구의 경우는 5만원 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황금향 한 봉지 가득 담아 9980원 28일 오전 이마트 용산점 농산매장에서 모델들이 황금향 무한담기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무한담기 행사를 통해 한 봉지 '9,980원'에 선보인다.

직장인 평균 월급 375만원 3%대 인상

전년동월대비 3.2% 인상

근로시간은 5.3% 증가

지난 9월 근로자 평균 임금이 약 375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근로시간은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도 약 7시간 늘었다.

28일 고용노동부가 펴낸 '2019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74만5000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3.2%(11만7000원)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398만원으로 2.6%(10만원), 임시일용근로자는 153만원으로 7.9%(1만4000원) 늘었다.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률이 높았다. 상영 300인 미만 사업체 334만원으로 2.3%(7만4000원) 증가한 반면, 300인 이상은 588만2000원으로 5.7%(3만6천원) 증가를 기록했다.

고용부는 "300인 이상 임금 증가는 지난해 8월에 지급된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등 자동차 관련 산업의 임금협상타결금 지급 시기가 올해에는 9~10월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근로시간은 52시간제 적용 확대에도 근로일수 증가에 따라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상용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2.1시간으로 전년동월 대비 7.7시간(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는 1인당 158.8시간으로 8시간(5.3%), 임시일용근로자는 93.4시간으로 1.3시간(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1~9월 누계로 보면 1인당 근로시간은 월평균 162.3시간으로 전년동기 대비 0.6시간(0.4%) 감소했다.

산업별로 임금총액이 많은 업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1061만3000원), 금융보험업(671만2000원) 순이며, 적은 업종은 숙박·음식점업(196만5000원),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240만6000원) 순이다.

10월말 기준 사업체(종사자 1인 이상) 종사자는 1842만8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9%(3만9000명) 늘었다.

이 가운데 상용직은 1542만5000명으로 2.1%(32만4000명) 증가, 임시·일용직은 188만명으로 2.8%(1만6000명) 증가했다.

뉴스1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